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대한민국의 강점 성경: 사도행전 17장 1-14절

Tag:

1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

니하나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행17:1-14)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 전도했던 이야기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서 구약성경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물론 말씀의 요지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 어느정도 말씀이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야요, 그가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고, 삼일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다.

거기에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사건을 곁들였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파하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를 고용해서 행정 당국에 고소하였고, 급히 몸을 숨긴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그들을 숨겨준 야손을 잡아 가두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는데, 이 일로 바울은 베뢰아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데살로니가의 불량배들이 베뢰아까지 와서 방해를 하게 되어 하는 수 없이 바울은 실라와 디

모테를 남겨두고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었다.

바울은 위험하지만, 회당을 순례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도활동을 감행하였다. 매번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는데도 항상 그곳에 자그마한 교회를 만들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자신은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힘겹고 어려운 전도활동을 이어갔으며 그것이 세계선교의 초석이 되었다. 다행히 정치권력자들의 박해는 없었으며, 국제적 국경의 제약도 없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땅에 아직 천국은 없다. 그러나 복음전도자는 항상 있어왔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나라는 항상 박해를 무릎 쓰면서 선진국이 되었다. 바로 이점이 대한민국의 강점이다.

헬조선? -과거에는 정말 조선이 헬조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피 대한민국.

노인 빈곤률 세계 1위? No. 노인 중 49.5%는 자녀들이 부양하고 있으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시골에 살고있는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자신들의 부동산이 있고, 다만 매월 소득이 없을 뿐이다. 있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는 부탄. 우리나라는 제일 불행한 나라 2등. 그러나 이 통계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통계는 오직 GDP와 지니계수이다. 우리나라 GDP는 1인당 29,730\$로 세계29위(2017), 지니계수는 인구가 많을수록 편차가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OECD평균을 밑돈다. (낮아야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독일이나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비슷하다. 오히려 케나다, 일본, 호주, 영국등은 우리보다 더 높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수준이 세계1위? 그러나 각 나라마다 비정규직을 규정하는 방식이나 산출 방식이 제각각. 그러니 누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노인들이 오래도록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 더 그렇다.)

흙수저? 대한민국만큼 기회가 평등한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 객관적인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유아사망률, 병원 접근성, 쾌적한 주거환경, 평균적인 단백질 섭취량, 교육받을 권리, 범죄율, 식품의약 안전지수 등.

자기 나라 말 한글이 있다. 소수. (세계 언어 6800개, 9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디아스포라 (숫자로로는 중국인, 유대인이 낮지만, 짧은 해외 진출 역사에 비해 놀랍다. -분단국가라는 비극이 낳은 강점)

유학생, 해외여행 경험자

지능지수

성실함, 생존력, 근로의욕

문화강국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

스포츠 강국 / 한류 강국

문맹률 1%

도로+교통, 초고속 인터넷(미친 인터넷 속도, wifi), 택배 and 배달의 민족, 음식문화, 의료보험

시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절묘한 조화?

치안 안전 제일의 나라

공공서비스 (비교적)

경제강국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2017)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저

/현재 경희대 교수. (예일대, 하버드대, 동경대, 등)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저.(2013) 등의 책도 있다.

그러나 집단 이기주의라는 세월호가 나라를 침몰 위기로 끌어가고 있다.

민노총은 이념논리에 빠져서 상생은 팽개치고 노동자 혁명을 통한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를 염원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주주, 자본가들은 악의 세력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일한 만큼 가져가야 정의라고만 생각한다. 우리사주에 소액 투자만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글로벌 기업의 역할은 무시한다. 그러면서 마치 현재는 노동법이 잘못되었으니, 우리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택시 아저씨들의 딜레마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허술한 서비스 지역을 ‘타다’가 치고 들어간 셈이다. 이제는 ‘타다’까지 공격한다. 자신들의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한다. 과거 자신들이 험난했던 시절만 생각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들은 사회적 괴물이나 끈대가 되어가고 있다.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법리적 탄핵논리에 빠져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으며 종북 세력들의 구태타가 맞다. 그러나 합법적 국가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굴복 당했다. 여성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 비겁하다. 정치적인 실패인 것이 더 큰 원인인데 아직도 그 실패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적인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채 감옥에 끌려갔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나?

영국의 대처수상처럼 소신있고 강한 정치인으로 살았어야 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태극기를 들지 않으면 모두 불법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법이나 윤리로만 이해하는 자들이다.

좌파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거리다.(심지어 50%라는 말도 있다. 아마도 찍힐까봐 말 못하는 자들을 포함해서다.) 한기총의 시국선언문을 단 한 줄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정교분리 원칙만 되뇌이는 좌파이론에 물든 꼰대들이다. (꼰대라는 말은 번데기의 경상도 사투리 꼰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고, 프랑스 말 백작(콩테)의 일본식 발음이 꼰데인데, 친일파 백작 이완용 꼰데로 부르다가 친일파 매국노들을 꼰대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나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하고 매사에 가르치려고하는 사람을 비하해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우리나라 표준어는 없는 셈이다.

이런 좌파목사들이 예로부터 기독교계에서 아는체를 하면서 생원 노릇을 하며 책을 만들고 매사에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어왔는데, 오늘날까지 여전하다. 좌파목사, 꼰대목사, 생원목사들은 자중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찬수 목사는 적극적으로 비판에 대응하면서 화해를 이루었다.)

언제까지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나라는 헬조선인가보다 하고 눈이 먼 채로 살아갈 것인가? 정신 차리고 성령충만하여 진실을 직시하자!

수돗물 테러를 왜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밝힐 수 없는 지경 아닌가? 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가?

정부가 눈 멀다고 국민도 눈 감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양성이 넘쳐나고 있으니 이점을 강점으로 삼아야 한다.(특히 이념 체

힘을 통한 지혜) / 쇠국이 아닌 개국을 통한 잠재력 폭발했던 것처럼,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은 날개를 달아야 한다. 대한민국이여 날개를 달아라! 날개를 달고 세계를 보며 날아가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아픔을 딛고 글로벌 시대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하리라. 우리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성경: 로마서 12장

Tag: 유선현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12:1-21)

영적 예배로 승리하자.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면서 승리하자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부지런히 경건생활하자.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12:1-21)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냐면 화목 보다는 경건과 진실과 진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과 싸우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